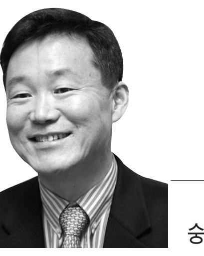
불자 세상보기

팬택의 아름다운 퇴장을 그리며



우승택
ST생테크연구소장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

현대 한국 사회는 갈등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도산 절차를 밟고 있는 팬택의 마지막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면서도 아름다운 뒷모습에 이 시대의 화합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지금부터 16,7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나라 각 가정이 모두 단 몇 주만이라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가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자식을 줄려고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대한민국을 위해 다 팔아버렸다는 것을 그 자녀들이 안다면, 그 후손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지금은 뭐라고 할까?

더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도 생활고에 시달리시고 그 자녀들도 덩달아 취업도 안 되고 생활에 속임을 당하고 사는 처지라면 더욱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착한 팬택 노동자들을 보며 1998년 IMF 이후 '금 모으기 운동'을 하던 한국인들이 생각난다. 도대체 이런 착한 국민들과 착한 종업원을 거느리는 사장들은 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 금을 다 내놓아 지금은 현찰이 없어 고생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만 보이는 한국의 엘리트들은 지금도 외환위기의 극복을 자기 자랑으로 알지,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다 내놓으라고 했던 것과 같은 이치라는 죄책감은 들지 않는 것 같다.

팬택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필자는 꽤 전부터 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팬택과 작은 인연이 있었기에 그러했다. 그 인연은 이러하다.

작년 12월에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가 '비앳텔' 이라는 베트남 국영 핸드폰 회사의 부탁이라면서 팬택에 아는 사람이 없느냐는 부탁을 받았다. 베트남의 국영 핸드폰회사는 베트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16개 국가인데, 핸드폰 제조회사를 만들어 팔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전에 일단 한국에서 핸드폰을 사서 '비앳텔' 브랜드로 바꾸어 200만대 정도 수입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접촉을 해보니 팬텍은 물론 채권단의 관리 하에 있어서 그러했지만, 핸드폰이 오직 한국어와 영어로 구동되는 사양만 가지고 있어서, 베트남과 그 외 16개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그냥 채권단과 사장단과 경영진이 적극적인 대책없이 시간 끌기만 하고 세계 무대는 완전히 포기한 기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97년 IMF 쇼크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어떤 업종이던지, 한국에서 3등내에만 들면 대기업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팬택은 핸드폰 업계의 2등과 3등을 하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었고, 외국에 건물을 구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한국에서 3등 이내가 아니라 세계에서 3등 이내 기업만 살게 되고, 지금은 세계에서 1등 기업만 배부르게 돈 버는 부자가 되고, 2등을 하면 직원들 월급은 주며 그런대로 먹고사는 부자가 되고, 3등을 하면 근근히 버티기만 할 뿐 고정비용도 커버하기 힘든 세상으로 바뀌었다. 팬택은 지금 저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세상사의 흐름을 놓쳤던 기업이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다.

부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세웠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봤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자신의 사촌 동생인 왕이 적군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자신이 죽어야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겠다면서 상투를 풀어 연못 속에 자기 머리를 쳐 박고, 머리카락과 연못 속의 풀을 묶은 후 자살하는 대목은 불교를 처음 접할 당시 나를 힘들게 했다. 이제와서 생각하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하며, 지도자는 전투 후의 뒷 수습도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부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본다.

채권은행단, 팬택의 경영진들은 팬택의 저 아름다움 품성을 가진 직원들을 키우기 위해 각 가정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희생 속에서 키워낸 인재들인지 모르는 것 같다. 저 훌륭한 직원들을 키우고 가꾸어 팬택이라는 회사에 보시를 했으나, 단지 월급을 받으러 온 '고정비 항목 수성요소'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나 보다.

마지막으로 팬택의 저 아름다운 직원들도 모두 깨우쳐, 이제는 회사라는 동물원 사파리 속의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라, 먹이를 주는 사육사가 없어도, 사바세계라는 정글과 밀림을 호령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을 열러줄 선지식을 만나는 인연이 생기기를 바랄 뿐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성적 소수자에게 관심을

퀴어 축제 막은 기독교, 불교를 배워라

홍기옥
경찰교육원
감성개발센터 교수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원불교, 천도교 등 이웃종교 지도자와 1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하여 5월 25일 개최되었다. 올해 봉축법요식에는 세월호 유가족, 성적 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함께 참석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

매년 6월에는 전국에 있는 성적 소수자들이 서울에 모여 '퀴어축제'를 개최된다. 올해 정상적으로 실시된다면 15회를 맞는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올해는 '퀴어축제'를 열 수 없거나 축소를 해야만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경찰이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성적 소수자들의 문화행사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를 불허하였기 때문이다. 이유는 성적 소수자 조직위에서 노숙까지 해가며 집회의 순번을 받기 위해 경찰서 앞에서 노숙했지만 기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집회 장소를 선점하였기 때문이다. 그것도 당초에 조직위가 6월 13일 대학로에서 퍼레이드를 개최하려 했으나 기독교 단체들과의 선점 경쟁에서 행사 장소를 이미 한 차례 바꾼 상태인 데도 말이다.

축제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보면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말한다. 퀴어축제의 시작을 보면 1969년 6월 28일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술집 '스톤월 인(Stonewall Inn)'에 동성애자들이 모여 교류하던 장소이었다. 당시 미국은 동성애가 합법이 아니어서 경찰의 단속대상이었다. 사건 당일 경찰의 현장 급습에 맞서 동성애자 집단이 스톤월 인에서 자발적으로 데모를 일으켜 며칠간 지속되었다. 1970년 6월 28일, '게이 퍼레이드'라는 행진이 시카고 로스엔젤레스와 뉴욕에서 열렸으며, 그것은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로 전해 내려온다. 오늘날 이와 비슷한 '게이 퍼레이드' 행사가 매년 6월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축제를 여는 것이다.

2011년 6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을 기반으로 한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결의안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세계 39개국 공동제안으로 발의됐으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23개국이 찬성, 19개국이 반대, 중국 등 기권 3개국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인권 이사회 이사국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기독교 집회 신고 선점해 봉쇄

불교, 봉축 법요식 초청 '귀감'

다름을 인정함은 아름다운 행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혐오받고 차별받는 3대 약자는 장애인, 전과자, 성적 소수자라고 말한다.

성적 소수자는 통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5~10%가 있다고 한다. 성적 소수자의 축제는 이러한 억압과 차별을 축제 기간만큼은 적어도 그들만의 축제로서 기쁘고 즐겁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의 축제를 방해하는 것은 억눌리고 차별받는 고무풍선과 같아서 언제 폭발할 지도 모르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한다면 그들의 해방구를 인정해야만 한다.

일부 개신교도들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림으로 규정하고 최소한의 해방구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고 보면 한국불교는 사회 속의 약자들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종교, 자비의 종교임에 틀림없다. 반대로 일부이긴 하지만 기독교의 하느님도 사랑으로 약자들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두운 곳에서 등불은 더욱 빛난다.

社說

교과서 내 불교 왜곡 바로잡아야

한국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사회 교과서 내 불교 왜곡 기술이 심각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탈레반에 의한 바미얀 석불 파괴 원인이 불교라는 기술부터 불교를 우상숭배 종교로 비하하는 등 그 내용도 다양하다고 한다.

이는 불광연구원과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문제를 조사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이중 심각한 것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이다. 우리나라 일선 고등학교에서 채택률 2위에 달하는 천재교육의 사회교과서를 보면 불교는 우상숭배의 종교이며 이로 인한 갈등을 유발하는 종교로 학생들이 오인하기 쉽다.

천재교육 교과서 내에는 기독교의 예수상이나 십자가 등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불교는 불상 등을 모시는 우상 숭배의 종교처럼 기술하고 있다.

또한 표현에서도 '최장, 최악'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마치 불교가 심각한 종교 갈등을 유발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교과서 내 불교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 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불광연구원과 불교사회연구소가 각종 교과서에서 불교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이를 연구해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산하에 '교과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한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를 가진다. 그만큼 교과서 제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종교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올바른 종교관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도 국민 화합을 유도하는 데 유용하다. 교과서 내 불교 왜곡을 바로잡는 것은 이런 요인에서 발로한다. 이 같은 교과서 모니터링과 연구 작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구인사 창건 70주년에 거는 기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가 6월 20일로 창건 70주년을 맞는다. 중국서 1400여년 전 만들어진 천태종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개창된 것은 고려 숙종 2년 대각국사 의천 스님에 의해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명맥이 끊겼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수행하고 귀국한 상월 원각대조사는 광복되던 해인 1945년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소백산의 연화지에 법당을 만들고 음력 5월5일 단오날 신도 8명과 함께 구인사를 창건했다. 창건 당시는 거의 초가삼간이나 다름없는 비좁은 수행공간이었다. 70년이 지난 현재 구인사는 50여동의 크고 작은 법당으로 이뤄진 대도량으로 성장했다. 또한 8명에 불과했던 신도는 250만 명으로 늘었고, 250여개의 사찰에 500여명의 승려가 소속돼 있다. 천태종 불사에는 특징이 숨어져 있다. 가람 배치를 고려하기보다는 신도를 최대한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실용적 공간으로 절을 지어 기와집이 아닌 함석집도 많았다고 한다. 이는 천태종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총무부장 월도 스님에 따르면 상월원각대조사는 철저한 규율과 수행 정신을 강조했다. 그래서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낮에는 산과 들에 나가 일하며 수행하고, 밤에는 선방서 불 꺼질 새 없이 경전을 외다 보니 이런 힘든 생활을 못 견디고 나가는 출가자들이 많았다. 이런 '주경야선'의 전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엄격한 규율 속에 수행하는 가운데 오히려 신도들은 늘어나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다.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 70년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천태종도 상월원각 대조사의 원력에 의해 무에서 유를 창조해 종단의 기틀을 다져왔다. 이제 그 정신을 다시 되새기며 다가올 새로운 70년을 어떻게 모색할지 그 중요한 몫은 이제 후학들의 숙제가 되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